

전 남

농민 등돌린 묵은배 수매

나주 15kg에 7000원...보상 적고 포장비 부담

“복지시설 등 제공 땀 유통질서 붕괴” 지적도

본격적인 햅배 출하를 앞두고 정부가 2009년산 배 수매에 나서고 있으나...

더욱이 이번 수매조건은 사실상 수 있는 품질에다 포장작업까지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등...

실상 시중에 유통 시킬 경우 본격적인 출하를 앞둔 햅배 이미지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위로비 제막식

장성군은 지난달 31일 북하면 명치마을에서 보도연맹사건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제막식을 가졌다.

나주 국·공유지 관리 예산타령만...

市 관리부서 4개 따로따로...일원화 시급

나주시가 국·공유지 관리가 험술하고 관리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점 지적(본보 8월16일자 11면)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절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시는 현재 국·공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려면 인력과 만만찮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관역시 건설과 농업기반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국·공유지 실태 파악을 위해 한꺼번에 전수조사도 필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권역별로 나눠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 일 글

“농어촌 명품교육 모범사례 될 것”

곽종월 해남교육장



“명품 교육을 통해 농어촌 교육의 모범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1일 부임한 곽종월(57) 해남교육장은 “학교 특성화를 통해 적정규모의 학교 만들기와 무지개학교 운영, 체질중심의 영어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신문고 설치·운영, 행정 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며 지난 1978년 교직에 입문해 25년 동안 평교사로 재직했으며 신안 도초교·해남교 교장을 지냈다. 전남도교육청이 도입한 지역교육장 공모제에 따라 선출·임명됐다. 가족으로는 부인 최미옥씨와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취미는 독서.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월례조회 ‘훈시’ 대신 ‘소통’

장성군, 단상 없애고 군수와 대화시간 마련

장성군이 민선 5기를 맞아 월례조회 때 군수 단상을 없애고 군수와 직원간 대화시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양수 군수는 1일 오전 장성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첫 월례조회에서 300여 명의 직원과 함께 1시간여 동안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대폭 줄여 대화의 시간을 늘렸다. 이날 회의는 기존 회의 시간보다 30분 늦춰 오전 9시에 시작했으며, 직속기관과 사업소·읍면에서는 실시간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군수 지시사항만 들어 딱딱한 분위기에서 회의를 했는데, 격의없이 대화를 할 수 있어 참신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최우수 명주 ‘강진 설성막걸리’



전남도 전통주 10종 선발

남도(南道)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전통술 10종이 선발됐다. 전남도는 지역 전통술 명품화 방안 일환으로 지난달 31일 전남중소기업종합센터에서 ‘제2회 남도 전통술 품평회’를 갖고 강진 병

영주조장 ‘설성 막걸리’ 등 6개 주종의 남도명주 10종을 선발했다. 이번 선정된 명주는 ▲설성막걸리(제조업체 병영 주조장) ▲햇쌀이 하늘수(안양주조장) ▲매실막걸리(백운주조) ▲진양주(해남진양주) ▲자희향 국화주(자희자양) ▲병영 사또주(병영주조장) ▲타미양스(추성고을) ▲루비콘

(대대로영농조합법인) ▲레드마운틴 참(함평천지북부자연농조합) 등 10종이다. 특히 강진 병영주조장은 명주 10종 가운데 생막걸리와 살균막걸리·증류식 소주 등 3개 부문에서 ‘최우수 명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품평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17개 전통술 제조업체에서 고유의 전통비법으로 빚은 22개 제품을 출품했다.

생필품 구입부터 금융거래 한곳에서 장흥 ‘원스톱 쇼핑센터’ 개소

한 장소에서 금융거래는 물론 생필품과 영농자재 구입 등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복지센터가 장흥에 문을 연다. 장남진 장흥농협(조합장 곽홍천)은 총사업비 97억원을 들여 장흥읍 건산리 686번지 일대 4000평 부지에 하나로 마트와 영농자재 백화점·주

유소·경제사업소·분점 건물’이 어우러지는 ‘조합원 종합복지타운’을 오는 18일 개장한다. 종합 복지센터는 전곡 5300여 지역 농협 가운데 최초로 세워졌다. 장남진장흥농협은 1차로 지난해 8월 주유소, 11월에 영농자재 백화점을 건립, 월평균 5억원과 4500만원의



경이적인 매출을 올렸다. 오는 4일에는 2710㎡(820평) 규모의 ‘하나로 마트’를 개점해 조합원들이 값싼 가격으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Plus Real Estate, Golden Public Auction, Daedong Real Estate, and others,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